

A Daily Bread

날짜: 아브 6 일 5785 (2025 년 7 월 31 일)

토라 문: 말씀들이라 (신명기)

주제: 균형잡힌 책망

우리는 앞서 신명기 (드바림) 서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부드럽게 책망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또 공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이신 엘로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비판의 말이 그들의 결점을 드러내며, 그로 인하여 여호와 10 가지 속성중이 하나인, גְּבוּרָה (게브라) “공의/정의”의 속성을 불러 일으키고, 그 비판의 대상은 책벌을 받게 되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인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 약점을 듣는 자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그러므로 토라 말씀을 살고 나누는 지도자는 이러한 상반적 이해관계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데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잡는 모범으로써, 랍비 여후다 바르 시몬은 모세께서 그 경우에서 취하셨던 방식을 조명하여 제시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는 마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이신 엘로힘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 듯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책망은 듣는 자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절대로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행위의 잘못을 인식하게 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이신 엘로힘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하도록 고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엘로힘 앞에 설 때는 그들의 단점을 축소시키고, 그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변호자가 되어 그들의 장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모세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손들을 위한 자비를 간청하시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여호와 엘로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에 대해 마치 그분을 책망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베에르 모세』도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며, 모세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중적인 평가를 드러낸 사건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1 장 12 절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다투고, 짐이 되며, 그들 간에 분쟁이 많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재판관들을 세워야 했다고 이스라엘 자손을 꾸짖습니다: “나 홀로 너희의 다툼과 짐과 송사를 감당할 수 있으랴?” 그러나 같은 장 15 절에서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족장들의 후손이며, 창조주의 ‘형제요 친구’요, ‘그분의 몫이요 유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며, 이처럼 위대한 민족을 이끌어서 여호와와 뜻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광대하고 신성한 특권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동참시키십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언어로 덮는 것은 여호와 창조주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어떠한 책망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해결 방식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바로 민수기 25 장에서, 모압 여인들과의 수치스러운 사건을 보고,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 위해 연류된 지파 지도자를 지체 없이 즉각 처단한 핀하스 (비느하스) 의 열정이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 입니다. 여기에 대한 미드라쉬 기록 입니다:

A Daily Bread

처음에, 하늘의 군대안 천사들은 핀하스의대담함을 문제 삼고자 했지만,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그들을 막으며 말씀 하십니다: “그를 내버려 두라. 그는 열정의사람이다. 그는 열정의 사람의 아들이요, 진노를 막는 자의 아들이니라.”

『케두샤트 레비』는 핀하스가 유혹에 빠진 이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여호와 엘로힘의 공의의 속성에 따르는 심판에 노출시킨 것이 아니라, 즉시 그 형제들을 방어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라라고 가르칩니다. 탈무드는 핀하스가, 죄 지은 자와 미디안 공주였던 코즈비를 죽였던 창에서 내던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2 만 4 천명이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열정적 질책과 따듯한 변호”라는 이해의 상반된 위치에서, 동시결합적인 선을 통해 핀하스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한 통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오히려 여호와와 은혜 보좌, 하늘로부터의 자비를 그가 섰던 그 땅에 증진시키는 결실을 이루셨습니다.

『케두샤트 레비』는 이스라엘 자손을 책망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사람의 원래의 높은 위치를 상기시키는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의 거룩한 영혼, 정련된 성품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써의 중요성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그는 스스로가 죄의 밑바닥의 추함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분별하여 자각하게 되고, 따라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창조주를 섬기는 존귀한 성회 가운데서 걸어나가야 할 인생의 소명을 똑바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Shalom.

“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엘로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12:12-13)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계 20:10-12)

“내가 토라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17-20)